

박물관내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전문도서관으로의 발전 전략

Analysis on the Library Management in Museum and
Development Strategy toward Special Library

이미영_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초 록

박물관내 도서관은 인력, 예산, 조직내 인식 부족 등으로 본연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박물관내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 보다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해외사례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관리자에서 수집가로서 사서의 역할 변화, 특성화된 컬렉션 확대, 기관 아카이브의 기능 수행, 도서관간 협력 네트워킹 구축 등을 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lack of human resource, budget and understanding in organization didn't allow the library in museum to accomplish its function fully. I tried to find the development strategies toward special library in abroad cases. As a result, I suggested the librarian's role change from manager to collector, the expansion of the specialized collection, the function as institutional archives, the construction of networking between libraries.

키워드: 전문도서관, 도서관 운영, 박물관, 아카이브
special library, library management, museum, archives

1. 서론

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나의 모기관 아래, 박물관과 도서관의 기능이 한 데 모아져 시너지효과를 내는 형태를 곧잘 취해왔다.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박물관에서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교육 등이 중심이 되는 박물관에서 도서관은 그 위상이나 기능이 다소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내 도서관은 박물관 전시와 교육 내용을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하는 기회와 의무가 충분히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대수준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가 없었고 분석과 평가없이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는 없기에 이 연구를 하고자 한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¹⁾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²⁾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³⁾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청하는 것이 의무도 아니고 각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나 집행을 위한 유예기간 등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은 법에 있는 내용일 뿐 따르지 않는다고 도서관이 운영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 전문도서관은 도서관이 소속된 모 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어 외부의 이용자에게는 제한적으로 봉사하고, 이 점이 일반인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기업체, 연구소 등에 속한 도서관과는 달리 큰 대중성과 공공성을 지닌 박물관내 도서관에게 이런 지적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단 큰 규모의 박물관에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를 다루는 소규모 박물관의 도서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있다. 모기관에 소속되어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배경도 그러하고, 전문적인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주제의 지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은 충분히 전문도서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박물관 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는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박물관 내 도서관의 현황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 평가함과 동시에 전문도서관으로서 성장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도서관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8호, 2009. 3.25, 일부개정]

2) 도서관법, 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도서관법, 40조(등록 및 폐관)

4) 김용근, 2001. 소규모 전문도서관에서의 정보관리 : 동의대학교 도서관 메일링리스트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권 3호(2001.9) : p.151.

2. 국내 현황 분석

일반적으로 전문도서관(Special Libraries)은 기업, 개인 회사(private business), 정부기관, 박물관, 대학, 병원, 협회 그리고 특수한 정보 요구를 가진 기타 기관에 위치한 정보자원센터(information resource centers)라고 정의된다. 전문도서관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CD, 인터넷 접근과 같은 컴퓨터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사용하며, 모기관 또는 이용자 조직을 위해 정보자료를 수집, 모니터, 조직, 분석, 평가하고, 모아서 배포한다.⁵⁾

한국도서관연감⁶⁾을 보면 2009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의 수는 590개관으로 주로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금융기관, 기업체, 언론기관, 통신기관, 기타 기관에 설치된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 기술정보실, 전문정보센터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기관 또는 설립단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소장자료와 정보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590개관 가운데 박물관 내 도서관 및 자료실의 수는 26개관(미술관, 기념관 포함)으로 전체의 약 4%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전문도서관의 평균 직원수가 4.1명, 평균좌석수가 21.6개, 연간 예산이 약 8,800만원인데 비해, 박물관내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1-2명의 직원과, 10개 전후의 좌석이 있으며 연간 예산 1,000만원 미만의 기관도 많다.

〈표 1〉 박물관내 도서관 리스트

기관명	기관명
국립고궁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국립중앙과학관 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경기도박물관 자료실
백범김구기념관 자료실	국립현대미술관 도서관자료실
서울대학교박물관 도서관자료실	두루뫼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자료실	국립춘천박물관 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정보센터	국립청주박물관 정보도서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교과서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 도서관	독립기념관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전문도서관	국립전주박물관 정보자료실
부산시립미술관 도서관자료실	전주역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도서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자료실
국립광주박물관 도서관	국립김해박물관

5) John Feather & Paul Sturges. 2003.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2nd ed. London & Newyork : Routledge : p.616.

6) 한국도서관협회, 2009. 「2009 한국도서관연감」 : pp.68-69.

7) 한국도서관협회, 2009. 「2009 한국도서관연감」: p.572-593까지의 전문도서관 리스트에서 발췌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위 기관들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과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려대학교박물관 문화정보자료실, 인문학박물관 도서실을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문학박물관의 경우 아직 도서실 모든 자료에 대한 정리작업이 끝나지 않아 일부 자료만 열람 가능하며 소장자료에 대한 MARC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경에 전체 오픈할 예정이긴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박물관의 대표적인 예로서 포함하였다.

2.1 소장 자료 분석

박물관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유형은 대부분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회 및 박물관의 연보나 학회지, 도록, 사진을 포함한 시청각자료이다.

인문학박물관의 경우 ‘인문학을 주제로 한 한국 근현대 인간의 삶’이라는 박물관 주제에 따라 해방이전·이후에 발간되어 시종에서 구하기 힘든 귀중 인문 도서, 남·북한의 인문사회과학 도서가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박물관 내 도서관은 역사, 예술사 분야의 자료 비중이 높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경우⁸⁾ 역사학, 예술사 분야의 자료가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며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 박물관 관련 전문도서 및 학술지 약 120,000여권, CD-ROM, DVD, VIDEO TAPE 등의 디지털매체자료 약 2,000여점을 비치하고 있다. 향후 도록류를 한 곳으로 모으는 등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2007년 자료실 대신 ‘아카이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업무기능과 조직이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바뀐 후 가장 큰 변화는 민속관련 사진자료를 집중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서지정보까지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민속아카이브의 아카이브자료 범위는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 아날로그자료, 디지털자료 등 민속아카이브가 소장, 수집하는 모든 형태의 매체’를 통칭한다. ‘도서’는 책, 서적 형태의 간행물을, ‘디지털자료’는 도서, 사진, 영상, 음성 등을 디지털화일로 생산하거나 변환한 자료를, ‘아날로그 자료’는 도서의 형태가 아닌 자료로서 LP, 테이프, 사진, 포스터, 지도, 팸플릿, 리플렛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민속아카이브 운영규정 가운데 수집기준⁹⁾을 보면, 박물관 활동과 관련한 아카이브자료도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5조(아카이브 자료 수집)에서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민속아카이브에 제출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음’을, 제9조(아카이브 자료 이관)에서는 ‘각 과는 자체 생산한 자료 및 전시 관련 문화상품 기념품 등을 민속아카이브로 납본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아카이브에는 다른 박물관내 도서관보다 광범위한 자료가 모이게 된다.

현재 민속아카이브 소장 자료의 규모는 민속학관련 도서 65,570여책, 사진 101,087점, 필름 107,456점 등 약 28만 건(2009년 10월 기준)이다. 내부이용자에 비해 일반인의 이용빈도가 적긴 하지만, 아카이브자료에 대한 이용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2,800점 정도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일반도서 분류체계는 KDC를, 아

8) <http://library.museum.go.kr/>

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운영규정(개정 2009. 7. 17 민박예규 제89호)

제4조(수집기준) ① 국내외 민속학 및 민족학 관련 아카이브 자료
 ② 박물관의 전시·연구에 필요한 아카이브 자료
 ③ 박물관 업무특성에 맞는 아카이브자료
 ④ 박물관 활동과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

카이브분류체계는 유물분류표준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정보센터는 구매, 기증 등을 통해 장서를 입수하며 도서구입비가 약 1,200만원, 웹 DB 구입비 7~800만원, DVD 구입비 100만원 정도로 연간 자료구입예산은 2,000만원을 조금 넘는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DB도 이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 관련 학회지 및 각종 학회의 학술정보 WEB DB에 대한 검색 및 출력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내 도서관 가운데 서울역사박물관처럼 전체 자료구입예산 중 웹 DB를 구입하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은 드물다. KDC분류에 따른 장서구성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센터도 역사와 예술, 사회과학분야가 박물관 자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표 2〉 서울역사박물관 주제별 소장자료(단행본) 현황

종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지리	기타	총계
2,129	929	574	3,270	199	578	4,750	195	2,421	12,976	1,119	29,140

2.2 예산

전체 전문도서관의 평균 예산이 8,800만원인데 반해 박물관내 도서관의 예산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다. 국가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시청각자료 구입비를 포함하여 연간 약 4,500만원의 자료구입 예산이 있으나, 매년 정부정책에 의해 10% 삭감되어 옴에 따라 DB구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속아카이브가 시스템 유지보수를 포함한 자료 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연간 3억원 정도로 그 가운데 가장 큰 편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국립박물관임에도 도서구입예산이 거의 없으며, 장서 약 20,000권의 대부분이 기증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자료 유형도 외부 연구소, 박물관, 대학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발굴보고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학회발간 학술지, 박물관전시 도록보다 일반도서의 비중이 더 작다.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자료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3 조직 및 업무

여느 전문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박물관내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의 규모는 크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도 학예업무와 전시가 중심인 박물관에서 도서관의 위치 자체가 독립조직이 아닌 팀 내부의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견개진이 쉽지 않고, 박물관의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급자의 성향에 따라 도서관 운영방향이 변하기 쉬운 단점이 있으며, 3명의 직원이 도서관을 담당하나 정규직은 1명뿐이다.

조직규모와 인력이 적다보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존재한다. 박물관내 도서관이 소위 도서관 업무라 불리는 자료 수집, 정리, 서비스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특히 소규모 박물관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¹⁰⁾. 물론 고려대학교 문화정보자료실처럼 박물관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없이 독립적으로 도서관 기능만 수행하는 기관도 있다.

10) 인문학박물관의 경우 '사서 및 연구원'으로서 직원을 채용하여 사서가 전시 기획을 주도하고 도록까지 발간한 경우도 있으며 전시를 위한 자료수집도 다른 연구원과 분담해서 같이 하였다.

민속박물관은 사서 2명을 포함하여 민속아카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0명이며, 박물관 다른 부서와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다. 박물관 전시에 필요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한 부서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증받은 수집자료에 한해서는 홍보효과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카이브 주최로 기증자료에 대한 특별전시를 매년 기획,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좌)와 컴퓨터 정보실(우)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정보센터¹¹⁾에는 2명의 정규직 사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서구입, 분류, 정리, 열람서비스 업무 외에도 박물관 전체의 아카이브 기능, 즉 각 부서의 업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서 심의를 거쳐 영구보존 부서로 이관하는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서비스는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박물관 자체가 '서울학 관련 연구중심 박물관'을 지향함에 따라 문화정보센터에서도 서울학 관련 장서를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4 이용자

대부분의 박물관은 학예사나 연구원을 비롯한 내부 직원이 가장 주된 이용자이며, 관련 분야 연구자나 대학원생도 많이 방문하는 편이다.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정보센터나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 같은 곳은 박물관이 아닌 자료실만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용자도 종종 있다.

11) <http://www.museum.seoul.kr/>

〈표 3〉 조사대상 박물관내 도서관 비교

	국립중앙 박물관 /도서관	국립전주 박물관 /정보자료실	국립민속 박물관 /민속 아카이브	서울역사 박물관 /문화 정보센터	국립전주 박물관 /정보자료실	국립전주 박물관 /정보자료실
도서관 면적	1,322㎡	374.88㎡	519㎡	약 180㎡	181.87㎡	-
장서량	-도서 :120,000권 -디지털매체 :약 2,000권	약 20,000권	-도서 :65,000권 -사진 :90,000건 -필름 :70,000건 -전자매체 :5,000건	약 30,000권	도서 약 15,000권 (전체 유물 약 24,000점)	약 20,000권
주요 장서	역사학, 예술학 분야 도서	-발굴보고서 -학술지 -전시도록 -일반도서	민속문화 자료	-단행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자료	-근현대를 주제로 한 단행본, 정간물	-도록, 보고서 -단행본
연간 예산	4,500만원 (시청각자료 포함) 매년 10%삭감	거의 없음	3억 (시스템 개발유지비 포함)	약 2,100만원	1,000만원 이하	구입보다 기증자료 비중 높음
도서관 직원	전체 사서 3명 (계약직 2명)	-관리직 1명 -담당(전산 전공) 1명 -사서 없음	-전체 10명 (연구원 포함) -사서 2명	사서 2명 (공무원)	2명 (계약직)	사서 1명 (학생 알바 2명)
주요 이용자	-박물관 직원 -대학원생, 관련 분야 연구자	-인근주민 -교육프로 그램 이용자 -전시관람자	-내부직원 -연구자	-박물관 직원 -센터 이용자	-박물관 이용자	-박물관 직원 -사학, 미술 사학 전공 학생, 교수
주요 이용자	-박물관 직원 -대학원생, 관련 분야 연구자	-인근주민 -교육프로 그램 이용자 -전시관람자	-내부직원 -연구자	-박물관 직원 -센터 이용자	-박물관 이용자	-박물관 직원 -사학, 미술 사학 전공 학생, 교수
시스템	KOLAS II	멜리사 6.01	자체 개발 시스템	SAN&T	SOLARS DLI II	TG

4. 해외 사례 분석

대표적인 4개 기관을 살펴보았다. 발전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박물관과 유사한 미술관을 포함하였으며 장서수, 직원수 등과 같은 계량적인 측면 보다는 해당 기관의 고유성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4.1 대영박물관 도서관¹²⁾ (British Museum-Library)

대영박물관에는 3가지 유형의 도서관이 있다. 먼저 폴 햄린 도서관(Paul Hamlyn Library)으로, 박물관의 공공참고도서관(public reference library) 역할을 수행하며 폴 햄린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과거 토마스 베이컨, 찰스 다윈, 찰스 디킨스와 같은 유명 인사가 이곳을 사용하기도 했다. 36석의 열람석이 있으며 도서의 1/3은 개가식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요청에 의해 이용가능하다. 18,000권 규모로 주제 범위는 고고학, 역사, 예술, 이집트학, 화폐학, 동양예술, 박물관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어린이용 도서나 교사용 자료도 이용가능하며 학생을 위한 정기적인 스토리텔링 시간도 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마다 존재하는 연구실(study rooms)과 도서관을 포함한 시설이 다. 인류학 도서관(Anthropology library)은 박물관 인류학 센터의 일부이자, 세계적인 전문 고고학 컬렉션 중 하나이다. 19세기에 시작되어 1976년 왕립 고고학연구소의 기증에 의해 소장 자료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 도서관에만 약 120,000권의 도서, 팸플릿, 4,000종의 저널(1,500종은 현재도 발행됨), 마이크로피시, 마이크로필름, 지도, 뉴스레터, 녹음자료, 의회 보고서 등이 있으며, 150,000장 이상의 사진도 중요한 컬렉션이다.

박물관의 '고대 이집트·수단 부서(Department of Ancient Egypt and Sudan)'의 컬렉션은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컬렉션 중 하나로 이 부서의 도서관은 세계 상위 5대 도서관안에 포함된다. 이 도서관은 1860년부터 존재해 왔으며 도서관의 목표는 이집트학과 수단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다. 19,000점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컬렉션은 1636년에 발행된 것이다. 도서관은 특히 19세기의 저널을 포함한 오래된 자료와 박물관 및 전시 카탈로그 약 1,300점, 희귀도서와 팸플릿 컬렉션으로 대표되는 특별 컬렉션이 있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서 도서관(Departmental Libraries)은 기본적으로는 대영박물관직원과 국제 큐레이터 교육프로그램의 참가자, 연구자, 국제 연구자 등이 주요 이용자이다.

마지막으로 중앙 도서관(central library)은 일차적으로 박물관 직원을 위한 일반 참고 도서관이나, 사전약속에 의해 일반 대중의 이용도 가능하다. 이 중앙도서관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위해서만 이용이 허락된다. 핵심 컬렉션은 박물관 전체 직원이 관심있을 만한 학문적 참고 자료와 박물관학, 수집, 고고학 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 분야에 걸친 약 16,000권의 도서와 100종의 저널이다.

이곳에는 1778년의 가이드와 시놉시스, 의회법령 사본을 포함한 대영박물관의 역사와 관련된 대규모 컬렉션은 물론, 박물관의 특징을 묘사한 소설작품도 소장하고 있다. 대영박물관에서 발행되는 모든 발행물의 사본, 정기간행물, 포스터와 엽서를 비롯하여 과거 전시와 관련된 일회성 자료의 컬렉션 및 희귀본도 소장하고 있다.

12) http://www.britishmuseum.org/research/research_facilities/departmental_libraries.aspx



〈그림 2〉 대영박물관의 중앙 도서관과 부서 도서관(우측)

대영박물관내에는 중앙 아카이브(central archive)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1753년 설립 때부터의 행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박물관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영구보존을 위해 선별된 것이다. 아카이브에는 박물관위원회의 회의록, 수집, 관리, 정책에 관한 부서별 보고서 및 재정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4.2 폰피두센터 공공참고도서관¹³⁾ (Center Pompidou – Public Reference Library)

프랑스 현대미술관인 폰피두센터의 도서관(BPI Public Information Library (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¹⁴⁾)은 프랑스 문화부(French Ministry of Culture)의 감독하에 있는 공공기관이다. 이 도서관은 일반 정보도서관으로서 이용자들에게 400,000건의 문서(documents)를 비롯해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기록 자료(documentary resources)를 서비스하고 있다. 100만권의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보고로, 20세기 미술에 대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다.¹⁵⁾ 열람석 1,300석, 시청각 210석, 어학실습 40석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7,200㎡의 현대미술 전시장과 비교해, 도서관의 규모는 15,000㎡로 상당히 크다. 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자 폰피두센터의 도서관으로서 공중에 대한 현대미술 자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폰피두센터에는 '아카이브 부서(archives department)'가 있는데 이는 기관의 메모리센터이자 폰피두센터의 각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documents)의 수집, 정리, 파일링, 보존, 활용을 담당하고 있다.

아카이브 기록의 10%는 사전예약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나 복사는 불가능하다. 이 기록에는 활동보고서(1973-현재), 예산 및 법령 개정에 관한 기록, 공식발간물, 언론 기사, 행사목록, BPI의 목록, 행사 포스터, 폰피두센터 건물 및 행사 사진, 공적 문서, 훈련보고서 등 다양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서에서 관리되는 기금은 공적 기록을 위한 것이며, 이 기록은 196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 재원의 90%는 최소 30년 이후에 공개될 기록을 위해 사용된다.

13) <http://www.centrepompidou.fr/Pompidou/Accueil.nsf/Document/HomePage?OpenDocument&L=2>

14) 폰피두센터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Public Reference Library'라는 항목이 있고, 이곳을 클릭하면 (<http://www.bpi.fr/en/index.html>)로 연결된다.

15)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회의. 200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해외사례조사 보고서. 서울 :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기획단 : p.25.

4.3 링컨 도서관·박물관 (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¹⁶⁾)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세운 이 도서관·박물관은 각각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며 그 기능도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 링컨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이라기보다는 링컨에 대한 기록관이다. 도서관·박물관 전체 직원이 100명을 넘으며 그 가운데 사서는 일반 사서, 수집담당 사서, 신문담당 사서, 링컨컬렉션 사서, 참고서비스 사서 등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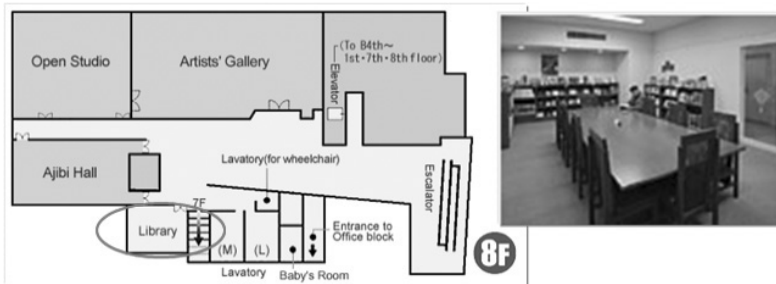
박물관이 테마파크 수준의 전시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도서관은 링컨전문 대통령도서관이자, 지역 공공도서관, 박물관 수장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의 기본 토대는 모두 도서관에 있는 자료이다.

인쇄자료의 경우 175,000권 이상의 도서와 팸플릿, 3,000개 이상의 지도, 1,200종의 정기간행물, 5,000종 이상의 신문을 소장하고 있으며, 360,000점 이상의 사진, 3,800개 이상의 테이프, 2,500개의 필름 등 시청각 자료도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0만점 이상의 편지, 일기, 기관 기록물을 포함한 메뉴스크립트의 규모가 매우 크다.¹⁷⁾

4.4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도서관¹⁸⁾ (Fukuoka Asian Art Museum, FAAM)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은 근현대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미술관이다.

2명의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에는 35,000권 이상의 도서, 정기간행물, 전시 카탈로그 등이 있으며 주로 아시아 현대미술과 관련한 것이다. 이곳에는 예술정보코너와 도서관이 있는데, 예술정보코너는 일시적으로 비디오 작품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이 코너에 있는 자료는 도서관으로 다시 옮겨진다. 예술정보코너에는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의 출판물이나 잡지, 비디오, 소장품검색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아시아 미술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도서관에는 아시아 근현대 미술에 관한 세계 우수 규모의 장서(도록, 도서, 잡지 등)를 소장하고 있다.



〈그림 3〉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도서관

16) <http://www.alplm.org/>

17) 건우사, 뮤지엄스코리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 성남 : 국가기록원 : pp.78-79.

18) <http://faam.city.fukuoka.lg.jp/eng/home.html>

이 박물관에는 주로 내부 이용을 위한 2개의 아카이브 공간(archive rooms)이 있는데, 아티스트에 관한 파일과 미술관의 영구보존 컬렉션에 관한 파일이 있다. 박물관 모든 프로그램의 포스터, 전단지(flyer), 비디오/사진 기록은 물론 1999년 박물관 개관 이전의 자료들(1979-1999년 사이에 후쿠오카 미술관-Fukuoka Art Museum에 의해 수집된 자료) 역시 이 내부 아카이브에서 관리 보존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가장 눈의 EMI는 점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다양성이다. 도록, 도서, 잡지만이 아니라, 박물관 및 전시 카탈로그, 법령 사본 등과 같이 박물관 자체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이 높았다. 아카이브가 별도로 있는 곳도 있어 박물관 내부에서 생산된 중요 기록물들은 빠짐없이 소장, 관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5. 발전 전략 제안

우리나라의 현황과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박물관내 전문도서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5.1 사서의 역할 : 관리자에게 수집가로의 변화 모색

대부분의 박물관내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 차별되는 고유한 특성이나 우수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단지 기관의 부속기능을 담당하는 파트로서 도서관의 힘이라 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은 다른 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사서는 단순한 관리자의 역할만을 지나치게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최근 전문도서관이 전통적인 관리중심에서 소장과 접근의 조화를 강조하는 절충형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¹⁹⁾이 있으나, 박물관내 도서관의 사서는 여전히 다른 기관의 사서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주요 이용자인 내부 직원의 업무지원 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박물관 및 소장자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예사나 연구원들 사이에서 사서는 다른 전문도서관에 비해 자료수집의 전문적, 독점적 권한이 매우 적었다. 심지어 자료입수방식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수동적이었다.

뉴욕 무대예술 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Dance²⁰⁾)의 경우, 공공도서관이지만 어느 곳보다 훌륭한 전문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전체 중 도서의 비율이 30%정도로 대부분이 서적 이외의 자료이며, 도서관에서는 무대예술 그 자체에 관한 것뿐 아니라 운영이나 예술가의 활동 전반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한다. 무대예술의 경우, 신체의 움직임이나 노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연 모습을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하는데, 그것을 도서관이 직접 수행하는 기록방법도 취한다. '가공되지 않은 소재'가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또한 무대예술 도서관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수집 노력이 바로 사서의 역할이다.

19) 이지호, 박옥화. 2008. 전문도서관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사서의 역할 및 업무영역 다변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08) : p.190.

20) 스가야 아키코 저. 이진영, 이기숙 역. 2004.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을 발췌, 정리하였다.

법률에 전문도서관의 업무를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서비스 제공’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가 아닌 전문 수집가로서의 역할 변화와 역량강화가 있어야만 기관의 인정과 자발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5.2 도서관의 자료 : 특성화된 컬렉션 확대

이미 오래전부터 도서관계에서는 공식적인 출판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 각종 학술회의 자료, 강의자료, 학위논문, 번역자료, 제안문서, 통계 자료 등과 같이 공식적인 출판경로를 통해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회색문헌 (grey literature)을 구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²¹⁾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자료는 도서관의 기능과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박물관 소장품이 ‘유일성’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흥미를 끄는 것처럼 박물관내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도 전문적이며, 자료 확장에 대한 요구도 크다.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증명은 결국 자료이다.

한 예로,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²²⁾는 2000년 설립 당시부터 아시아 현대미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는데 현재 아카이브와 온라인 자료 목록을 통해 무료로 2만개가 넘는 타이틀로 검색 가능한, 이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료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이자 아카이브로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함께 수집하며 현재 [전시도록, 개인화집,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인명파일, 초대장, 리플렛, 신문기사 클리핑]과 같은 주요 카테고리 이를 분류하고 있다.

AAA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1차 자료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다.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핵심이 되는 하이라이트 컬렉션에는 개인이 기증한 사적인 자료, 희귀한 정기간행물이나 출판물, 이벤트와 기관 파일, 이미지와 시청각자료를 포함하여 AAA에서 제작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AAA는 현재 컬렉션 내 많은 양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핵심 컬렉션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컬렉션의 이용빈도를 높여려 하고 있다.

〈표 4〉 Asia Art Archive의 스페셜 컬렉션

컬렉션명	소개	소장 자료
마오 수후이 컬렉션 (Mao Xuhui Collection)	중국 서남부 예술계에서 아방가르드의 '정신적 지주'로 간주되는데, 20년이 넘는 작가 활동을 하면서 광범위한 개인적인 아카이브를 구축	마오가 동료 작가, 큐레이터 및 평론가들과 주고받았던 서신들과 스케치북, 노트북, 필사본, 전시 기록물 등 마오의 컬렉션을 2004년부터 디지털화
나이젤 카메론 컬렉션 (Nigel Cameron Collection)	홍콩 기반의 역사학자 및 큐레이터이자 평론가로, South China Morning Post 과 Orientations 잡지에 기고하면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아시아 예술 및 문화에 대하여 방대한 양의 글을 씀	1972년부터 1994년까지의 1,655점에 달하는 타이프라이터 원고와 기사스크랩 등의 개인소장품을 2005년에 기증

21)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_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_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p.328.
22) www.aaa.org.hk

〈표 4〉 Asia Art Archive의 스페셜 컬렉션

컬렉션명	소개	소장 자료
루 펑 컬렉션 (Lu Peng Collection)	미술사가 루 펑	다양한 원자료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들과의 서신교환 및 프로젝트 제안서, 필사본, 기사스크랩, 슬라이드, 사진, 전시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1980년대 자료 • 1980년대 중국 예술현장에 대한 내용으로 1992년에 출간된 중요한 논문, Lu's A History of China Modern Art: 1979-1989에서 사용된 시각 이미지들 • The First 1990s Biennial Art Fair Guangzhou를 기획한 조직위원회의 모든 기록들
장 샤오강 컬렉션 (Zhang Xiaogang Collection)	2007년에 AAA는 '가족' 시리즈 회화 작품으로 유명한 중국작가 장 샤오강과 함께 그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 수행	이 디지털 컬렉션은 장 샤오강의 드로잉, 스케치, 사적인 서신들, 사진, 필사본, 기사 스크랩, 작품목록, 전시관련자료 등의 작업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1970년대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 포함
야오 주이충 대만 현대 미술 컬렉션	대만 작가인 야오 주이충은 작가 겸 평론가로서, 사진작업, 설치미술, 무대미술을 할 뿐 아니라 미술 비평을 병행	1990년대 초반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모은 것으로 5000여 점의 초대장, 리플렛, 자신이 기고한 정기간행물 및 신문 기사의 스캔 이미지가 포함됨
AAA가 제작한 시청각 자료		중요한 전시 및 이벤트를 기록하는 과정과 함께 미술계 중요 인사들을 심도 있게 인터뷰하여 비디오나 오디오 자료로 제작
중국의 1980년대 정기간행물 (1980s Periodicals in China)		1980년대 정기간행물에 대한 컬렉션을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 Jiangsu Art Monthly, New Observation, Art World, The Trend of art Thought 등등의 정기간행물 추가

직원을 위한 또는 일반 대중을 위한 단순 기능의 자료실, 도서실로서는 박물관 내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이라 인정받을 수 없다. 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에 가면 '민속학' 관련 전문자료는 대부분 볼 수 있고, '서울역사 박물관'에 가면 '서울학' 관련 유일본과 희귀본을 가장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식의 컬렉션 확대를 위한 목표설정을 통해 단순히 기관내 도서관(institutional library)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특별한 도서관(special library)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3 도서관 조직 : 기관 아카이브로 성장

기관의 역사는 물론 박물관 연구자들의 역량과 성과의 보존소로서 업무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library & archive'로의 명칭변경을 제안한다. 해당 박물관과 관련한 것이야말로 그 도서관에서만 소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많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이미 아카이브 부서가 다양한 박물관 업무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기능과 함께 기관의 역사보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 아카이브가 없는 곳이라면 이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다. 일부 논문에서 모기관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영구보존 대상인 행정문서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다²³⁾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문서와 도서자료는 분명히 매우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전제된

상황에서 기능 확장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인력 및 기능, 조직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용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기록관의 역할은 무리이지만 아카이브 기능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도서관이 모기관과 박물관이 생산한 중요 기록의 보관처이자 활용처로서 자리매김해나간다는 확장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5.4 도서관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례에서 살펴본것처럼 국내 박물관 내 도서관간 네트워크는 거의 부재하다. 예산 규모도 작고 추가적인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간 자료 공동 구매와 같이 다른 분야의 전문도서관들이 걸어 온 협력 사례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 협력 네트워크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6. 결론

상당수의 전문도서관이 소속기관장의 직속 하에 있지 않고, 행정부서의 과나 실에 속해 있어서 그 전문성과 독자성을 살릴 수 없고, 사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영자나 기관에까지 전달되는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구태의연한 인식을 타파하고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²⁴⁾ 그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기능 약화까지 초래하였다.

그러나 직원과 일부 외부 이용자만을 위한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문’ 도서관이라 불리기를 바라는 안 된다. 전문도서관이 단순한 기관의 자료실(institutional library)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철저히 고민해 봐야 한다. 전문도서관으로서 박물관내 도서관은 스스로의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본적으로 ‘자료’를 중심에 놓고 든든한 토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사서가 과거의 자료 관리자(manager), 정보중개자(mediator)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집가(collector)로서 역할을 변화시킬 것, 특성화된 컬렉션 확대 및 기관 아카이브로 성장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과학분야 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전문도서관간 협력의 역사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시대에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구하고 오히려 도서관을 우회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²⁵⁾ 이런 상황에서 박물관내 도서관은 기관 전체 구성원의 역량이나 업무 유형, 주제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어떤 전문도서관보다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박물관내 도서관들의 활동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대중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한 박물관의 성장만큼이나 도서관도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23) 이용재. 2007. 전문도서관 마케팅 경영전략. _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_. 제38권 제3호(2007) : pp.347-348.

24) 김용근. 2001. 소규모 전문도서관에서의 정보관리 : 동의대학교 도서관 메일링리스트를 중심으로. _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_. 32권 3호(2001.9) : p.153.

25) 이용재. 2007. 전문도서관 마케팅 경영전략. _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_. 제38권 제3호(2007) : p.338.

▣ 참고 문헌 ▣

- John Feather & Paul Sturges. 2003.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2nd ed. London & Newyork : Routledge.
- 권우사, 뮤지엄스코리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 성남 : 국가기록원.
- 김용근. 2001. 소규모 전문도서관에서의 정보관리 : 동의대학교 도서관 메일링리스트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2권 3호(2001.9) : 149-168.
-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회의. 200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해외사례조사 보고서. 서울 :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 스가야 아키코 저. 이진영, 이기숙 역. 2004.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서울 : 지식여행.
- 이용재. 2007. 전문도서관 마케팅 경영전략.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7) : 335-351.
- 이지호, 박옥화. 2008. 전문도서관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사서의 역할 및 업무영역 다변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08) : 189-205.
-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도서관연감.
-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는 각주 참조>